

부산 역사, ‘살아있는’ 지역사 교과서로 탄생하다

– 부산광역시, 『부산역사 청소년과 만나다』, 2024 –

정현주*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내용 구성 소개 및 활용법 제안
- III. 나가며(‘살아 있는’ 지역사 교과서의 탄생)

I. 들어가며

『부산역사 청소년과 만나다』라는 책을 접하게 된 것은 SNS를 하던 중 우연한 기회였다. 처음에는 집필진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신기하다는 느낌이었고, 다음으로 지역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일선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다.

지역사는 예전부터 역사교육계에서 관심을 기울여오던 분야였다. 중앙집권화된 국가 체제를 오랜 기간 경험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 자치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애향심 증대

* 금샘고등학교 교사 / historyjung@hanmail.net

를 위해 지역사는 좋은 소재거리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서적이나, 교육 방법론이 공유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선 학교 교사들의 개인기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끊임없는 교과서 진도의 압박 속에서 지역사를 따로 다루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교적 성적 압박에서 자유로워 활동 위주의 수업이 가능한 중학교에 비해 대입에 직결되는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본 도서의 발간사 첫 부분에 적혀 있는 “역사란 나로부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소에서부터 출발합니다.”란 문장처럼, 역사에 대한 관심을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통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주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먼 곳까지, 그리고 가까운 시대에서 먼 시대까지 가는 것도 무엇이든 첫 번째 걸음이 중요하듯 말이다. 지역사는 바로 주변에 대한 관심을 학생들에게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재이다. 지역사를 통해 주변 역사에서 시작해 전체 역사까지 관심이 옮겨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본 도서는 그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Ⅱ. 내용 구성 소개 및 활용법 제언

본 도서는 총 9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부산 지역 전체에 대한 개관적 성격을 보이고, 이후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각 시기별 부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9개의 주제 이후 부산과 한국의 역사 연표를 제시하여 비교하면서 마감한다. 전체적으로 중등학교 교과서 체계를 따르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준다.

시기별 주제에는 서두에 해당 시기의 세계사와 한국사를 다루어 지 역사의 흐름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해 중등학교 교과서를 보조하는 듯

한 느낌을 준다. 중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세계사 속 한국사를 보여주듯, 본 도서는 세계사 속 한국사, 한국사 속 지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런 구성은 지역사가 동떨어진 역사가 아니라 전체 한국사 및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진행하였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이 알고 있는 역사 지식에 맞춰 지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중요한 장치라 하겠다.

전체적인 접근 이후 각 주제 별 지역사의 전개 내용을 서술한다. 지역사가 중심인만큼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유적, 유물, 인물을 다루고 있다. 이런 구성은 지역을 더욱 세밀하게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들이 학생, 곧 내 주변에서 일어났었다는 사실 확인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에 흥미를 느끼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본 도서에서 가장 특기할 점은 바로 각 주제의 마지막에 제시된 ‘역사 탐방’이다. 답사를 염두하고 만든 느낌인데, 학생들이 각 유적지를 직접 돌아보고 학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본 도서가 청소년을 위해 쓰였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면, 주제 1은 ‘부산의 공간구성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전 시기에 걸친 부산 역사 개관을 진행하고 있다. 총 18쪽에 걸쳐 주제 2부터 9까지 다루게 될 시기별 지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하여 향후 진행할 내용들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 그러면서도 소주제 2의 ‘동래군의 범위’를 통해 지역명의 변화를 나타내어 현존하는 지역명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변했는지를 통해 지역명 또한 역사적인 산물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부산이 왜 부산인가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 있다.

주제 2 ~ 4는 부산 지역의 고대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총 90쪽에 걸쳐 다루고 있는데 전체 분량 중 4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본인은 이 부분이 매우 파격적이라 생각한다. 이는 최근 부산에서 고대사 발굴 성과가 제법 나오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분량에서 고대사는 적은 편에 속하는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교과서와의 유기적 관계로 인해 고대사 분량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고대사를 비록 지역사이지만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선 학교에서 보조 교재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주제 2는 ‘부산, 역사가 시작되다’로 32쪽에 걸쳐 부산의 선사시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소주제 1을 통해 세계와 한국의 선사시대를 개관하면서 인류의 탄생과 변화에 대해 다루고, 각 시기별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고고학 용어 정리’를 통해 실물 자료 파악을 위해 필수적인 고고학 분야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소주제 2 ~ 5는 각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 시기별 전체적인 특징을 먼저 다루고 이후 부산 지역의 유적을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중 특기할 만한 부분은 구석기, 신석기의 석기류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기존 교과서의 경우 이전에 비해 많이 변화긴 했으나 지면상의 문제로 인해 선사시대를 다각도로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족한 용어 설명은 교사가 직접 표현하거나 보조 자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각종 석기류는 이름만 듣고는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일이 많아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런 보조 자료가 필수적이었다. 본 도서는 이에 대한 보조 자료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자료라 생각한다. 교과서 속 설명 및 탐구 활동 자료와 더불어 본 도

서에 상세히 설명된 석기류에 대한 내용을 조합하면 막막한 수업 환경을 환기시킬 수 있다 생각한다.

청동기와 철기 시기 부분에서는 각 시기별 유적을 설명하는 부분이 특징인데, 현재 해당 유적 인근에 위치한 건물,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지역 주변에 거주 중인 학생들에게 참신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선사 시기가 나로부터 먼 이야기의 일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 “역사란 나로부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장소에서부터 출발합니다.”라는 발간사의 말처럼 각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탐구심을 부여할 수 있는 서술 방식이라 생각한다. 역사를 수업하는 많은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근현대사에 비해 선사, 고대사는 학생들에게 너무 막막한 감을 주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그에 대한 해법을 본 도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주제 3은 ‘고대 부산에는 가야 사람들이 살았다’로 21쪽에 걸쳐 부산에 존재했던 독로국을 다루고 있다. 사실, 독로국은 지역 소국이므로 기존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아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알지만 정작 가야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더 알려지지 않은 독로국이라는 존재는 학생들에게 신비함과 두려움을 함께 줄 수 있는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다.

당시 지역 소국들이 그러하듯 독로국 또한 독자적인 기록을 남긴 바 없으므로 문헌 자료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본 도서에서도 이런 한계점을 보여주듯 대부분의 설명을 고고학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고고학 자료를 통한 설명을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통해 풀어내어 ‘세계 속의 한국’처럼, ‘고대사 속 지역사’라는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에 꼭 등장하는 ‘금관가야연맹’, ‘광개토왕의 남정’의 요소를 통해 부산이 가

야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마지막으로 복천동고분군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독로국이라는 부산의 고대 소국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 본 주제 면면에 배치되어 있는 무수한 당시 유물들은 교과서에서 접하기 힘든 가야와 부산 지역 소국의 역사를 잘 드러내어 본 도서가 교과서의 보조적인 자료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 4는 ‘신라의 백성이 된 부산 사람들’로 38쪽에 걸쳐 서술되었다. 가야에서 신라로 문화권이 변화하는 모습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 잘 설명하고 있으며, 신라에 편입된 후 거칠산군으로 변화하는 것을 최근 주목된 배산성의 목간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였다.

본 주제에서 가장 특기할 것은 바로 당시 사람들의 삶을 신라 골품제, 조세제도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에도 고대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의 유물을 통해 주민들이 어떻게 동원되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서술한 것은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주제 4는 분량이 많은 만큼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데, 지역사에 대한 친밀감 증진을 위한 부산 명소의 역사성 언급도 잊지 않았다. 범어사, 장안사, 해운대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고대 지역사를 다시금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제 5는 ‘왕건의 후삼국 통합과 고려시대의 변방, 부산’으로 26쪽에 걸쳐 서술되었다. 상대적으로 고대사의 비중에 비해 아쉽다는 느낌은 있지만, 부산의 토성 중 가장 알려진 동래 정씨와 정서의 『정과정곡』을 통해 문학과 역사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부분은 과목 융합 수업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중요한 서술이라 생각한다.

고려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기억하는 외국 집단 중 하나가 왜구이다. 왜구의 급증은 일본의 국내 정세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부산이 늘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서 이런 접근법은 학생들의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주제 6은 ‘국방·외교의 거점이 된 조선 전기의 부산’으로 22쪽 분량이다. 군사·외교적 관점에서 조선 전기의 부산을 바라보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의 지방체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당시 부산이 지닌 거점적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군진의 설치와 연관된 지명의 등장, 왜관 무역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다루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다각도로 볼 수 있게 서술되었다.

본 주제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소주제 4의 임진왜란일 것이다. 일본과 가장 가까웠던 만큼 공격도 가장 먼저 당한 부산에서의 전투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막연하게 생각했을 전쟁에서의 부산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전쟁의 원인, 전개 과정과 결과에 치중했던 기존 교과서의 서술에서 벗어나 전쟁 중 일반 백성들의 강제 노역, 피난, 저항을 모두 드러내어 전쟁이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여지를 충분히 남기고 있다.

주제 7은 ‘국방·무역·외교 중심지로 발돋움한 조선 후기 조선’으로 24쪽에 걸쳐 서술되었다. 먼저, 임진왜란 후 더욱 중요해진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부산을 동래읍성의 정비와 금정산성의 축조 그리고 경상좌수영과 각 군진들의 변화를 통해 잘 그려내고 있다. 이어 왜관의 위치 변화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잘 소개하고, 일본과의 교역이 이어지면서 문화적 교류 또한 발생해 양국 간 다양한 접점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본과의 독특한 관계는 통신사의 활동을 통해 더욱 강조되어 타지와 다른 부산만의 독특한 상황을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제 8과 9는 부산의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55쪽 분량인데, 중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분량을 생각한다면 소략하다 느껴질 부분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기존의 교과서에서 근현대 부분이 상당수 다루어지다 보니, 부산만의 내용으로 따로 다룰 것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제 8은 ‘개항으로 부산이 탄생하다’로 28쪽 분량이다.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된 부산의 상황을 그려내면서 일본 거류지 형성으로 인한 부산의 변화가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중심지였던 동래 지역에서 일본인이 개발한 용두산 일대가 중심지로 되었고, 부산 서부 지역의 많은 동네가 함께 형성되었음을 서술하여 조선 시기 작은 포구였던 부산이 발돋움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해방 이후 부산의 중심지가 남포동 주변부였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매우 흥미로운 지역사 탐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근래에 구도심지였던 남포동 일대가 상대적으로 쇠퇴한 것을 생각한다면 시기에 따른 도심의 변화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 8의 후반부는 부산 지역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이를 당시 있었던 애국 계몽 운동, 국채 보상 운동, 3.1운동, 각종 민족운동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여 기존 교과서와의 접점을 찾아주고 있다. 특집 기사로 다룬 ‘인물로 본 부산의 독립운동가’는 기존 교과서에 서도 많이 다루어진 인물들을 삽입하여 학생들에게 익숙함을 던져주고, 더불어 아는 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투쟁심을 잘 유도하고 있다.

주제 9는 ‘산업화의 출발점·민주화의 성지, 현대 부산’으로 27쪽 분량이다. 초반부는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문화적 융합이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국제시장, 밀면으로 대표되는 당시 부산의 경제와 문화 담론은 방송 매체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하여 학생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한편,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부산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요 사건인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제1공화국 시기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를 잘 설명하였다. 이 내용은 기존 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으로 심화 학습 차원에서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후반부는 민주화의 중심지였던 부산을 그려내는데, 부마민주항쟁과 6월민주항쟁을 통해 군사정권 시기의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을 잘 표현하였다. 모두 기존 교과서에서 많이 다룬 내용으로 학생들의 동아리 답사 혹은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Ⅲ. 나가며(‘살아 있는’ 지역사 교과서의 탄생)

본 도서를 살펴본 느낌은 처음의 궁금증을 확인하면서 이런 종류의 서적이 더 많이 출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굳이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고대사 비중이 높고, 근현대사 비중이 낮다는 점이 곧 장점이자 단점일 것이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가장 큰 격동의 시기를 보낸 부산이기에 지역 탐방,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룰만한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교과서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일 수도 있을 것이나, 지역 특화를 통해 충분히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기에 추후 본 도서의 내용을 증보할 기회가 있다면 전근대편과 근현대편의 두 권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는 학생을 위한 탐구 자료

제시와 서술 형태 개선을 통해 학생 친화적으로 변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 내에서 전체적인 역사를 다루다 보니 부득이하게 단순 사실의 나열, 큼직한 담론의 서술에 그치는 것도 사실이었다. 굵직 굵직한 역사적 사실 사이사이를 채워야 하는 것은 수업 담당 교사의 개인기에 의존해 왔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각종 교사 모임 등을 통해 보조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의 교사들은 그런 자료로부터 유리되어 수업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 도서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한다. 특히, 지역사를 다루고 싶어하던 많은 교사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높이 살 만 하다. 답답했던 과거의 교과서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교과서 서술 체제의 지침을 보여주었던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¹⁾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 자료의 새로운 지침을 본 도서가 보여 주었다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본 도서를 부산의 ‘살아있는’ 지역사 교과서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본 도서를 집필하는데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투고일 : 2024. 09. 30.

게재확정일 : 2024. 11. 22.

1)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2002.